

주님께서 주신 헌납의 법

교리와 성약 42:30, 38~39

교리와 성약 78:3~7

교리와 성약 105:1~5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헌납의 법(예: 교리와 성약 42:32, 53 참조) . . . 에는 재정적 임무와 아울러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현 세에서 적용되는 해의 왕국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5:5 참조) 헌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별하거나 성스러운 것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생에서 얻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선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납할 때 옵니다.(요한복음 17:1, 4;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희생과 헌납’은 하늘의 율법으로,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두 율법은 서로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 . .

헌납이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희생과 구별됩니다. 무언가를 헌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태워지도록 제단 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한 구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분께 그것을 바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받고 그 재능을 다방면에 걸쳐 증진시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 구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주께 삶을 헌납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우리의 진심 어린 전부”, 『리아호나』, 2022년 5월호, 124쪽)

헌납의 법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부름과 임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는 온전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냅니다. 선지자들과 성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궁핍한 자를 돕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헌납의 법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21년 4월호, 31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